

WMC 기도학교 시리즈 4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How You should pray.*

제 2 권



김정복 목사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2권)”를 발간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무릎을 끓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친히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도명령들을, 복음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고도 심오한 “주님의 기도교육”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명령들을  
감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많은 기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27.  
부족한 주의 종 목사 김정복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2)

### *How You should pray.*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제 1 강의 성경적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 제 2 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 제 3 강의 그런즉 내개로 돌아오라(Return to God)
- 제 4 강의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교육
- 제 5 강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 | 5
1. 회개하고 기도하라 | 6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 막1:15)
  2.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 10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마7:7-12, 6:8, 30-33)
  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14  
기도의 우선순위(마6:24-34)
  4.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 | 19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마26:41)
  5.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 26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마6:5-7)
  6. 용서하고 기도하라 | 28  
먼저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도하라(마6:14-15, 마18:21-35)
  7.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 32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눅18:1-8, 마14:22-33)
  8. 믿음으로 기도하라 | 35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21:21-22)
  9.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 40  
외식하는 자의 기도 (마6:5)
  10.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 42  
이방인의 기도 (마6:7)
  11.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 43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마5:44, 농6:27-28)
  12.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45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11:28-30)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 47  
좁은 문은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다(마7:13-14, 4:17)
  14.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 48  
기도로 하늘에 보물을 저축하라(마6:19-21, 농11:34-36, 12:22-34, 16:13)
- 제 6 강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 제 7 강의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제 8 강의 성령 하나님과 기도
- 제 9 강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 제 10 강의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제 11 강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제 12 강의 주기도 강해

## 제 5 강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

### 1.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 막1:15)

### 2.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마7:7-12, 6:8, 30-33)

### 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우선순위(마6:24-34)

### 4.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마26:41)

### 5.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마6:6)

### 6. 용서하고 기도하라

먼저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도하라(마6:14-15, 마18:21-35)

### 7.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눅18:1-8, 마14:22-33)

### 8.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21:21-22)

### 9.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마6:5)

### 10.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 (마6:7)

### 11.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마5:44, 놀6:27-28)

### 12.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11:28-30)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다(마7:13-14, 4:17)

### 14.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기도로 하늘에 보물을 저축하라(마6:19-21, 놀11:34-36, 12:22-34, 16:13)

## 제 5 강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

### 1.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共生涯)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

○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 1.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 하셨을까?

1)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하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시102:1에서 기자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시102:2에서 나의 괴로운 날에 금식하고 속죄한 후에 내가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죄가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上達)되지 않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끊겨진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끊겨진 대화가 다시 소통(疏通)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上達)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시102:1-2)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레23:26-28)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66:18)
-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사1:15)
-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사59:1-3)
-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렘5:25)
-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7)

## 2) “회개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 (1)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 (2)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은 물론 사랑과 열심과 헌신이 돌아오는 것
- (3)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 (4)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 3)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 (1)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 (2)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 (3)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무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 4)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

- (1)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 (2)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창15-17장)

## 2. 회개(Repent)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회개(Repent)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Return to God)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My Lord), 나의 하나님(My God)으로 인정(Admission)하는 것이며, 나는 죄인(sinner)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sin)를 자백(Confession)하고, 용서를 구(Ask)하는 것이다.

### 1) 무엇을 인정(Admission)해야 하나?

첫째 :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My Lord), 나의 하나님(My God)으로 인정한다.

둘째 :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 한다(눅15:17-19)

눅15장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가지고 면 나라로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 2) 어떠한 죄를 자백(Confession)해야 하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알려 주시는 모든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해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 3) 성경에서 말하는 죄(罪, sin)는 어떤 것인가?

#### ○ 구약의 죄

- (1) 하나님을 경외(Fear God)하지 않는 것이 죄(罪)이다.(창3:5-6, 시36:1-4)
-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順從)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창2:15-17, 삼상15:22)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 (3)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行)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출20:1-17)

#### ○ 신약의 죄

신약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계속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요16:9, 8:24)
- (2)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롬7:15-8:4)
- (3)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이 죄이다.(갈5:16-21)
- (4)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 (1)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끝까지 찾아다니며, 잃은 양을 찾은 즉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눅15:3-7)
  - (2)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열 드라크마를 채우시는 아버지의 마음(눅15:8-10)
-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중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 (3) 돌아온 탕자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눅15:20-21, 삼하14:33)

### 자식들(탕자)의 마음은 어떠한가?

- (1)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택한 후에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는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다.
- (2) 아버지 중심에서 자기중심, 자기생각, 자기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
- (3) 아버지께 무관심하고, 아버지를 잊고 사는 둘째 아들 : 세리와 죄인(눅15:13-24)
- (4)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형 : 바리새인과 서기관(눅15:25-30)

#### 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의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하신 말씀은 죽음(개인의 종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늘 깨어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씀이며,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는 말씀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라(요7:6)

#### 성경말씀에 의한 회개의 내용을 정리하면

- (1) 먼저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Return to God)
- (2)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 (3)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
- (4)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 (5)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 (6)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죄 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멀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 (7)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 2.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7-12)

### 1.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 1) 구하라 (Ask)
- 2) 찾으라 (Seek)
- 3) 문을 두드리라 (Knock the door)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다. 왜? “구하라 (Ask)”고만 하지 않고, 찾으라(Seek), 문을 두드리라(Knock the door)고 하셨을까?

#### 1) 구하라 (Ask)

예수님은 먼저 구하라고 하신다.

(1)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구하기 전에 주시지 않고,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 그러므로 그들(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6:8)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6:32)

주인이 동물이나 거지에게 무엇을 줄 때에는 그들에게 묻지 않고 필요한 것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는 먼저 “구하라” 하시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예우하시기 때문이다.

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자녀로 예우하신다.

- 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동물이나 거지같이 취급하시지 않는다.
- 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 라) 우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

## (2)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슨 이유인가?

- 가) 나의 죄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 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Ask and you will be received.)라고 하시지 않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구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그 분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우리가 받는 것이다.

- 1)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야 한다.
- 2)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한다.
- 3) 회개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 4)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구하는 이마다 다 받는 것이다.

## 2) 찾아라 (Seek)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 되지 않거나 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야 한다.

### (1)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삼위일체 되시는 유일신(唯一神, One & Only God) 하나님입니다.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55:6)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

### (2) 어디서 찾아야 하나?

성경말씀 안에서 그 분을 찾아야 한다. : In the Bible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

### (3) 어떻게 찾아야 하나?

가)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므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므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다)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므로, 찬양으로 만날 수 있다. 찬양은 곡조있는 기도이다.

#### 3) 문을 두드리라(Knock the door)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 하신다.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요10:7)

그러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두드릴(Knock)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두드릴 수 있나?

(1)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두드리(Knock)고, 예수님을 여는 것이다.

(2)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회개하기 전부터 이미 나의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동거(同居)하신다.

(3) 내가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두드리는 것이다.

○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19-20)

○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

베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눅15:17-24)

### 1)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 2) 회개하는 방법

##### (1) 인정하라

- 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
- ②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 (2) 자백하라 :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죄들을 자백한다.

##### (3) 열심을 내라 :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 3) 내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동거하신다.

- (1)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 (2)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회개하면)
- (3)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 (4)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 4)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

- (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2)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 (3)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한 모든 것을 이미 응답해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모두 받은 줄로 믿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다.

### 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기독의 우선순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6:24-34)

#### 1. 성경에서 말하는 두 주인은 누구인가?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신다.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 2. 왜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하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 2) 목숨을 위하여 :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 3)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목숨을 연장시키고,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 4)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편 백합화, 들풀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 5) 저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1:6)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12-13)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5-17)

○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갈4:6-7)

### 3. 염려와 근심은 누가 하는 것인가?

- 1) 이는 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 2)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6:32)

### 4. 믿는 자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 1)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臨在)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는 나라이다.

#### 2)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 (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 (3)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라  
(눅 17:20-21)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 3)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당시 노예들의 삶을 뜻한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고 살았으며, 주인을 경외하며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었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고,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과 흥해와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성도는 :

- (1)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창22:12, 출3:5, 수5:15)
- (2)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마22:37-40)
- (3)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딤전4:5, 벤전1:15-16)
- (4) 하나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마4:17, 고전15:31)
- (5) 하나님의 주권아래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롬1:17)

○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5:15)

#### 4)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

- 1) 성경의 모든 죄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며, 피조물을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 2)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이 모든 죄를 다 범했고 죄의 삶은 사망이므로 온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죄 문제 곧 죄의 삶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 한 직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야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도록 계획하셨다.
- 3) 이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육신(incarnation)하셔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젤림은 우리의 허물 때 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텔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사53:4-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사 온전한 중보자(Mediator)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그가 이룩한 의(義, Righteousness)인데, 그 “의(義)”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能動的順從, Active Obedience)과 수동적 순종(受動的順從, Passive Obedienc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仲保者)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사 비하(卑下, humiliation)의 길을 걸으셨으며, 그 결과 수동적으로 승귀(昇貴, exaltation)의 길에 이르게 되신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 비하(卑下, Humiliation)(빌2:5-8)  
성육신(成肉身), 수난(受難), 죽으심(死亡), 매장(埋葬)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 승귀(昇貴, Exaltation)(빌2:9-11)  
부활(復活), 승천(昇天), 재림(再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5-11)

예수 그리스도 만이 유일한 구세주(One & Only God)이심을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으로 우리가 개선되거나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Born again)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난날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 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는다.

칭의(稱義)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한 “의(義)”가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방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해주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삶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므로 나의 죄 값을 나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 할 죄의 삶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범하는 죄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3-24)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엡2:8-9)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 훌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3:5-7)

#### 5)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

- 1) 우리의 내일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 2) 우리는 내일 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우리의 내일 일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 3)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오늘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 4) 우리는 주님의 것이므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4.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1. 예수님께서 갯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려 가실 때에 처음에는 11 제자와 함께 가셨으나, 8 제자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마26:36)
2. 그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마26:37-38)
3.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마26:39)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끓고 기도하여 이르시되(눅22:41),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눅22:42)

4. 기도 후에 3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26:40-41)하시고, 홀로 다시 기도하려 가사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마26:42-45)

### 크리스천과 자연인

- 1)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My Lord), 나의 하나님(My God)으로 믿는 크리스천과 믿지 않는 자연인(Natural man) 또는 육에 속한 자(the man without the Spirit)로 나눌 수 있다.
-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은 성령충만한 신령한 사람(Spiritual man)과 육신에 속한 사람(Carnal man, unto babes in Christ)으로 나눌 수 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연인(Natural man)을 말하고, 신령한 자(Spiritual man)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며,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신앙이 어린 아이(Baby Christian)와 같은 사람을 말한다.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고전2:14)

○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2:15-16)

○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젓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고전3:1-3)

###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의를 행치 않은 자이며,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이며, 자기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거짓을 행하며,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이다.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5-17)

○ 이려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3:10)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8:44)

### 이 세상에 온 사탄의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도둑질하고, 죄와 악에 빠지게 하여, 병들게 하고 죽이고 그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life)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abundantly) 얻게 하려는 것이다.

○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 1. 아담과 이브에 대한 시험

1)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5-17)

2)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아는 간교한 뱀은 아담을 시험하지 않고, 아담에게 말씀을 전하여 들은 이브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시험한다.

3)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변경하여 묻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 4)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사탄은 접근하지 못한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탄은 담대하게 거짓말로 유혹한다.

####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2:16-17)

#### 간교한 뱀의 질문

이브에게 묻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

#### 이브의 답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창3:2-3)

#### 간교한 뱀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브를 보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4-5)하고 거짓말을 한다.

- 1)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한다.
- 2)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교만한 마음을 준다.
- 3)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피조물이 창조주 같이 된다고 한다.

#### 이브와 아담의 범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3:6)

#### 이브의 실수

- 1) 아담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 2)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고, 그 나무를 본즉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 3) 그 나무의 열매를 이브가 먼저 따먹고
- 4)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 아담의 실수

- 1)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 2)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 막지 않았다.
- 3)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 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

아담과 이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시험에 패배한 것이다.

### 2. 아브람과 사래에 대한 시험

#### 1)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다.

-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shield)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reward)이니라(창15:1)
- (2)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창15:4-7, 행7:2-4)
- (3) 해가 끼어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창15:17-18)

#### 2) 사탄은 사래를 통하여 아브람을 시험했다.

○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첨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십 년 후였더라(창16:2-3)

### 사래의 실수

- 1)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았다고, 아기 못 낳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轉嫁)했다.
- 2) 자식에 대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첨으로 주었다.
- 3) 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다.

### 아브람의 실수

- 1)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
- 2) 사래가 하갈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지 않았다.
- 3) 하나님께서 짹지어 주신 사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 3. 가룟 유다에 대한 시험

- 1)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 13:2)

- 2) 사탄이 가룟 유다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13:26-27)

- 3)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결박되었다.

○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리라.(요13:30)

### 가룟 유다의 실수

- 1)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즉시 물리치지 않았다.
- 2) 가룟 유다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 들였다.
- 3)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다.

### 4.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 1) 첫번째 시험 :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굶주리셨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하며 시험했다.

#### 사탄의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4:3)

####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마4:4)

### 하나님의 말씀

○ 너를 낚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하심이니라(신8:3)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아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하고 시험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대적하여 물리치셨다.

### 2) 두번째 시험 :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리라고 유혹한다.

### 사탄의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라

### 예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 하나님의 말씀

○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신6:16)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고 시험하였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다.

### 3) 세번째 시험 :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한다

### 사탄의 시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 예수님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 하나님의 말씀

○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6:13)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옆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유혹하며 시험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신 방법

-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대적하여 승리하셨다.
- 2)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
- 3)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 5.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6)

골방, 닉방, 기도방, 기도의자에서 기도하라

- 1)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내가 드리지만,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기도는 내가 드리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34:15, 렘33:3)

- 2)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는 말씀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하라는 뜻이다.
- 3)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  
    으로 가르치셨다. 두 세사람이 함께 모여 드리는 합심기도,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전체기도, 통성기도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나와 단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 4)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하라는 말씀이다 이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임을 뜻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 5)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의 모든 문제를 듣기를 원하신다. 나의 말 못할 마음의 아픔, 나의 고통, 누구도 이해 못하는 나만의 사정,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나와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願)하신다.
- 6)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는 물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이시다.

골방에서의 기도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깊은 사랑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방에서, 또는 기도의자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 \* 요한낙스(John Knox)의 기도방(Prayer room)

필자가 1980년 3월에 영국 Scotland Edinburgh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했을 때에, 요한 낙스의 집을 방문하였다. 자그마한 집인데 좁은 계단을 통해 2층에 오르니 서재 옆에 작은 구석방이 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이 구석방이 요한 낙스가 스코트랜드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던 기도의 방이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나도 집안에 기도의 방을 만들고 싶었으나, 우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는 기도의 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 요한웨슬리(John Wesley)의 기도의자(Prayer chair)

필자가 1989년9월부터 12월까지 영국 London 교외에 있는 WEC 선교부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에 London에 있는 요한 웨슬리의 주택을 방문하였다. 이층 웨슬리의 서재에 들어가니 서재에 붙어 있는 작은 방에 기도의자와 무릎 받침대가 있다. 요한 웨슬리가 매일 기도의자에 엎드려, 무릎받침대에 무릎을 끓고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즉시 나의 책상 옆에 “기도의자와 무릎받침대”를 마련하였다.



기도의자와 무릎 받침대

## 6. 먼저 남을 용서하고 기도하라

### 용서하고 기도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마11:25)  
○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불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18:21-35)

1.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허물이나 잘못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기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용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따라서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3.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 1)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the natural man)이거나
  - 2) 믿음이 연약한 육신에 속한 성도(baby Christian, Carnel man)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 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백 데나리온의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다시 감옥(지옥)에 들어가야 한다.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동료를 용서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입술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물론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사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다.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4:8-11)

### 예수님의 용서

- 1)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흘리심으로 용서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별을 면케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 2)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 3)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4-35)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 사람의 용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 이 되게는 할 수 없다.

#### 믿는 것과 용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성도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도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을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 (1)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

는 권세를 받았으며,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며,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따라서 만일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이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믿는 사람이 아니다.

(2)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성품은 그리스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성품은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어야 한다.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9:23)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때에 믿기 이전의 성품은 모두 죽었고, 이제 성도가 사는 것은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며,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3)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반드시 용서하여야 한다.

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셨다.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3-24)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5:1)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 같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신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 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떠니라(골3:12-14)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하고, 그 사랑 안에는 이웃의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신다.

믿는 자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행위(行爲)” 곧 이행득의(以行得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 곧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문제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어린 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이다.(고전3:1-3)

## 7.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1-8)

- 1)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과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간청을 비유로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며, 낙심치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다.
- 2)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오래하였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거나, 하나님을 원망 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면 낙심하게 된다.
- 3) 기도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 4) 아브라함은 언약(창12:1-3)을 받은 후, 25년 후에 이삭을 응답 받았고(창21:1-5), 이삭은 기도한 후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응답 받았다(창26:19-26)
- 5) 로마서 8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8:32),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8:35)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최선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시간 보다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시간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한다.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렘33:3)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한다(요6:69).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뜻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맷돌(millstone)은 느린 것 같지만 가장 곱게 갈아진다.

- 6)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직 응답이 없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응답 될 때까지 끝까

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여야 한다.”(히12:2)

- (1)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미7:7)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호12:6)
- (2)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의심이 생겨서 바람을 내려다보았을 때에 물에 빠졌다(마14:22-33)
- (3)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기도하는 교만한 바리세인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드리는 겸비한 세리의 기도(눅18:9-14)
- (4)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의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왕상18:1, 36-38)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형편을 보고”(왕상19:1-3)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엘리야의 연약한 기도(왕상19:4-5)

7)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 (1) 인자가 올 때에 곧 말세가 가까우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 (2)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를 찾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8)

○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딤전4:1-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2-5)

## 8.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21:21-2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1. 받은 믿음 (칭의, 稱義) : 엡 2:8-9
2. 듣는 믿음 (양육, 養育) : 롬 10:17
3. 사는 믿음 (성화, 聖化) : 롬 1:17

### 1. 받은 믿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값없이 구속(救贖)함을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자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 2. 듣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

“듣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되고 이미 내 안에 있는 받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들음에서 성장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연단함으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이웃과의 사이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는 육신에 속한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안에서 삶으로 장성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5-17)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니라(딤헌4:5-8)

○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11:25-26)

○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벼렸노라(고전13:11)

### 3. 사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1) “사는 믿음”은 장성한 믿음 곧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믿음

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오직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장성한 믿음 곧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냄새)가 풍겨져 나오며, 믿음의 삶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생활이며, 믿음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며, 믿음은 성도의 인격이다. 믿음은 성도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울 사도와 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 죽는 자이다. 이때에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役事)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하신 말씀은 장성한 믿음 곧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의존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두려워하고 섬기며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기도는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合)한 기도이다.

3)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代贖)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和睦祭物)로 세상에 보내 사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稱)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으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사랑이며 권세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2:14-15)

○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고후3:2-3)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15:31)

## 성경에 나타난 믿음과 기도

### (1) 구원에 이르는 믿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생하게 된 믿음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깊壑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 (2)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믿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4:14)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7:37-39)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내재(内在)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5:18)

### (3)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 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9:23)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超能力者)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홍해가 갈라지게 한 모세의 기도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에 태양을 정지시킨 여호수아의 기도(수10:8-14)나, 해 그림자를 십도가 뒤로 물러가게 한 이사야의 기도(왕하20:8-11)의 역사는 모두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 (4)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눅17:5-6)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다. “겨자씨(Mustard seed)”는 비록 작은 씨(seed)이지만,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씨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여 후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이므로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이다.

1.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믿음은 불완전하고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2. 하나님께 받은 믿음(Gift of God)은 온전하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3.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4.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생긴다.

○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 (5)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21:21-22)

“의심치 않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구하는 것이다.

○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2-24)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15:7)

## 9.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 외식하는 자의 기도 (마6:5)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6:5)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외식하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율법과 유대인의 기도관행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였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데도 남의 눈에 티와 같은 결점을 보고 비판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따랐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자기자신의 삶은 옳고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삶은 잘못되었다고 멸시하였으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곁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한다.

### 1)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1)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종교적 관행 또는 유전에 따른 기도

- (2)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 (3)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는 자의 기도
- (4)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면 자의 기도
- (5)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기도
- (6) 외식으로 길게하는 기도
- (7)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

세리의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 죄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교만한 자의 기도

- 2) 예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걸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 진저” 하시며 강하게 꾸짖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 하셨다.
- 3)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율법도 잘 알고, 스스로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초 신자들 보다, 기도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맷세지이다.

○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께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29:13)

○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막12:38-40)

○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7:3-5)

○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눅20:47)

## 10.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 이방인의 기도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6:7-8)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다.

- 1)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까닭은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6:9)하시고, 주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 3)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저희를 본 받지 말라 구하기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신다.
- 4)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Agape)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시다. 따라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重言復言)하며 길게 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사65:24)이라고 말씀 하신다.
- 5)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시38:9) 하며, 다윗과 같이 소박하고 명료하며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거나 길게 한다고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 6)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들도 하나님께서 들보시고 키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시며,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마6:25;31-32)고 말씀하시며, 너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7)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중언부언하며, 길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나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나에게 회개 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는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 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 8) 따라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양(Adoration)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죄를 자백(Confession)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Thanksgiving)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Supplication)하며, 진심으로 남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도고(Intercession)에 힘써야 한다.
- 9)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이다. 나의 소원이나 간구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눅22:42)

## 11.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 1)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 2)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6:27-2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마5:48)고 하신다.

- 1)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걸웃까지 내어 주며 억지로 오리(五里)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十里)를 동행하며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2) 그 이유는 육신에 속한 신앙인(carnal man) 곧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baby christian)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 도다”(롬7:15-19) 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하며 한탄하였으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하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였으며, 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하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고백한다.
- 3)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고 하였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분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펉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으며, 원수도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 할 때에는 내 안에 살아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4)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충만하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이므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에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Fruit, 단수)를 던질 것이다. 처음에는 사랑의 열매, 이어서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원수들에게 던질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희가 갚지 말고 너희는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 하셨다.

- (1)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  
(삼상24:10-12, 26:7-12)
- (2) 다윗은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  
(삼하16:5-13)
- (3) 다윗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다.  
(삼하18:33)

○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19-21)

## 12.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폐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1.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다.
    - 1) 우리는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나?
      - (1) 우리의 생사병노(生死病老)의 문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 (2) 우리의 의식주(衣食住) 문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모든 수고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 하는 수고이다.
    - 2)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인가?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죄의 짐은 사람을 짓누르고 있으나 사람은 죄의 짐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 성경은 죄의 짐은 사망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짐이다.
  - 3)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다.
-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며,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실 수 있을까?

## 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다.

### 1)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 2) 예수님께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명예를 우리가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

명예(Yoke)에는 소 두 마리가 좌우에서 함께 메는 쌍명예가 있다.

말 두 마리가 끄는 쌍두마차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쌍명예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말씀이다.

- (1)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
- (2)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면, 예수님의 호흡과 발걸음에 맞추어야 한다.
- (3)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면, 예수님과 같은 명예에 떼여 있으므로 예수님이 서시면 함께 서고, 예수님의 가시면 함께 가야 한다.
- (4)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
- (5)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면, 예수님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 3)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면, 예수님께서 나의 힘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쉼을 얻게 된다.

### 4) 예수님의 명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이고, 우리의 명예는 죄의 짐이다.

우리의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다.

### 3.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하신다.

#### 왜 예수님의 명예는 나에게 쉽고, 예수님의 짐은 나에게 가볍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명예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짐은 나의 죄 짐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짐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 짐을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는 나에게 쉽고, 예수님의 짐은 나에게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13:2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7:13-14)

#### 1. 좁은 문(The narrow door)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가 은혜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 하신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10:7, 9)

#### 2.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 1)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좁은 문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적(功績)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문이다.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19:23-26)

##### 2)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다.

좁은 문은 회개하고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聖化) 되어 들어가는 문이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은 자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 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행하였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너뜨렸다.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전4:5)
-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었다(출3:5, 수5:15)

3) 좁은 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문이다.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문이다.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니라(눅9:23)

4) 좁은 문은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문이다.

좁은 문은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삶이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 14.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기도로 하늘에 보물을 저축하라(마6:19-21, 농11:34-36)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19-21)

1.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기 때문이다.

### 1)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보물(treasures)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일반적으로 금, 은, 재산, 돈, 명예, 건강 등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땅에 쌓아 두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1:2-3)

### 2) 땅에 있는 좀(moth)과 동록(rust)과 도적(thieves)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과 동록과 도둑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탄을 의미한다.

○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10:10)

### 3)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신 보물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받게 되는 신령한 보물을 말한다. 그것은 복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씀, 기도, 성령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전도와 선교의 열매이다.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 2. 하늘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하지 못한다.

### 1) 참된 보물을 도둑맞은 성도들이 있다.

좀과 동록과 도둑에 의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령한 보물인 믿음에 녹이 슬고, 믿음을 도둑맞은 성도들이 있다.

### 2)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도둑맞은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 성도, 기도를 쉬는 성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온전한 삽일조와 봉헌물(말3:8)을 바치지 않는 성도가 있다.

### 3) 성도들 중에 성령의 열매를 도둑맞아 영적으로 병들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 곧 사랑(Agape), 기쁨(Joy), 평안(Peace), 오래 참음(Patience), 자비(Kindness), 양선(Goodness), 충성(Faithfulness), 온유(Gen-

tleness)와 절제(Self control)를 도둑맞은 성도들이 있다. 좀이 깊어먹고, 녹슬고, 도적맞은 성령의 열매로는 성령 충만 할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며,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으며,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다.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느니라(요일4:11-12)

○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 3. 어떻게 우리의 신령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 둘 수 있나?

1)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므로 신령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다.

- (1) 매일 말씀을 읽고, 회개하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
- (2) 매일 깨어서 기도하므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마26:41)
- (3)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므로 성화(聖化)를 이루어 나간다.(딤전4:5)
- (4)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랑의 향연(香煙)이다.(계8:3-4)
- (5)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고(Intercession)는 하늘나라 향로에 쌓여지는 보물이다.(딤전2:1)
- (6)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의 열매는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다.
- (7)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다.(딤후 4:1, 2)

2) 주일 성수와 교회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

- (1) 주일 성수와 교회예배에 적극 참석한다.(마12:8, 앱1:22-23, 요4:23-24)
- (2) 가정예배와 자녀교육에 힘쓴다.(딤전3:3-4, 딤후1:5, 3:14-15)

3)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와 사랑의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물(말3:8)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 아리랑 찬송가

우리나라 민요

작사 김정복 목사



하 - 나 님 - 아 - 벼 지 - 사 랑 -- 해 - 요 - - -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사 랑 -- 해 - 요 - - -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사 랑 -- 해 - 요 - - - -  
할 - 렐 루 - 할 - 렐 루 - 할 렐 --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벼 - 지 - 고 - 마 워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고 - 마 워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고 - 마 워 요 -  
할 - 렐 루 - 할 - 렐 - 루 - 할 - 렐 루 야 -



나 - 를 위 하 여 독 생 자 주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십 자 가지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기 도 하 시 - 는 - - - -  
할 - 렐 루 야 - 할 렐 루 야 - 아 - - - -



하 - 나 님 - 아 - 벼 - 지 - 감 - 사 해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감 - 사 해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감 - 사 해 요 -  
할 - 렐 루 - 할 - 렐 - 루 - 할 - 렐 루 야 -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하시는 예수님

**WMC 국제기도학교  
WMC School of Prayer Int'l**

**Rev. Chung Bok Kim**

*Professor of Prayerology*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 765-7517(H) • (213) 500-0962(Cell)  
[www.wmcprayer.org](http://www.wmcprayer.org) • [wmcprayer@gmail.com](mailto:wmcprayer@gmail.com)